

봉준호 '기생충' 오스카 삼키다

최고 권위의 작품상에 감독상·각본상·국제영화상 수상
100년 한국영화 아카데미 벽 넘고 세계 영화사 새로 썼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세계에 '선한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관련기사 2·16면〉

기생충은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올해 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권위의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거머쥐었다.

'기생충'의 이번 4관왕 달성은 한국 영화뿐 아니라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으로 작품상을 받아 오스카 역사도 새롭게 쓰는 기록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은 지난 1995년 텔버트 맨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마티' (1955년 황금종려상, 1956년 아카데미 작품상) 이후 64년 만이며 역대 두 번째다.

한국 영화는 지난 1962년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출품을 시작으로 꾸준히 아카데미상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후보에 지명됐을 뿐 아니라 4관왕의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들끓을 일으켰다.

제작자 박신애 E&A 대표는 무대에 오른 뒤 "말이 안 나온다.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기쁘

다"며 "이런 결정을 해준 아카데미 회원분들의 결정에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의 강력한 경쟁작은 샘 랜데스 감독의 '1917'를 비롯해 '아이리시맨' (마틴 스코세이지), '조조 래빗' (타이카 와이티티), '작은 아씨들' (그레타 거위그), '조커' (토드 필립스),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 (쿠엔틴 타란티노) 등이었다.

봉준호 감독은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영화상 수상자로 세 번이나 무대에 올랐다. 아시아계 감독이 감독상을 받은 것은 대만 출신 리안 감독 이후 두 번째이며 아시아계 작가가 각본상을 받은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다.

봉 감독은 감독상 수상자로 무대에 올라 마틴 스코세이지, 쿠엔틴 타란티노 등 감독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오스카에서 허락한다면 이 트로피를 텍사스 전기톱으로 잘라서 오 등분 해 나누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해 좌중을 웃음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한편 '기생충'은 미술상과 편집상 후보에도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 역시 안타깝게도 수상하지는 못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어 열린 파티에 참석해 이날 수상한 6개의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주춤' 경제 불안은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주춤하면서 과도한 공포감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에서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하는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경제 생태계가 마비될 정도로 불안심리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현재 국내에서 추가로 확진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국내 확진자는 광주·전남 3명 등 27명으로 전날과 동일하다. 이날까지 완치돼 병원을 퇴원한 환자는 총 4명이다. 나머지 23명도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며 상태는 모두 안정적이라는 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명이다.

확진자 2명(16·18번째) 발생한 광주에선 이들과 접촉하거나 접촉자의 가족인 60명이 광주21세기병원(24명)과 소방학교(36명) 등에 격리돼 국방부, 보훈병원, 조선대 병원, 우암의료재단 의료진의 관리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오는 18일까지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19일 시를 기해 이들의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다.

광주에선 다행히 이날까지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175건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이 나오며 등 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형 광주시 보건건강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생활수칙만 잘 지키면 예방이 가능하고 설령 감염되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므로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면서 "혹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만큼 시민들께선 정상적인 일상·경제활동을 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민주당, 광주·전남 총선후보 면접심사

양자나·다자나 대결구도 촉각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전남·광주·인천지역 후보 100명과 마주 앉아 후보자 자격을 검증했다. 예비후보들은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패션코드'를 맞추는 등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공천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날 면접은 각 지역구 별로 이어졌으며 1분 가량의 자기소개 이후, 후보별로 4~6분 가량 질의 응답이 진행됐고 지역구에 따라 현안사업 등에 대한 공통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공천위원들은 예비후보들이 제출한 서류상 정보를 확인하고 후보별 맞춤형 '송곳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예비후보자 별로 탈당 경력이나 음주운전 등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후보에겐 재직시절 사업에 대한 비판적 질문도 나왔다.

공관위는 서울·충북·충남·경북·대구·대전(11일), 서울·울산·제주·경남·강원·부산(12일), 원외 단수신청자·원내 단수신청자(13일) 등 오는 13일까지 예비후보 총 473명의 면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적합도 여론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면접과 실사가 끝나는 13일 이후에는 심사결과를 종합해 각 지역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우선, 각 지역구 별로 경선 대결구도를 비롯한 단수공천, 전략공천 지역 추가 지정, 영입인재

배치 등이 가닥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선 지역구 경선이 두 명의 예비후보가 맞붙는 양자 대결일지, 아니면 3명 이상의 예비후보가 대결하는 다자구도가 적용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광주·전남에서의 전략공천 여부도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4·15 총선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하는 '반칙'을 저지른 후보 신청자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당원 과다 조회 신청자에 대해 공천 심사 및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징계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징계 대상과 내용은 12일 최고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지역에

서도 권리당원 명부 조회 기준을 넘긴 예비후보가 4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징계 대상이 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5곳쯤 되고, 과다조회 정도는 모두 다르다"며 "하지만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추가 논의 등을 통해 수요일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 권리당원을 '100명 이상'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면 공천 심사·경선 과정에서 15%를 감산하고 '100명 이내'면 10%를 감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똑똑똑 청년일자리 Job Cafe

취준생을 위한
핫~플레이스
청년일자리잡카페에서
취업기회 job go~!
취업의 꿈을 펼쳐봐요^^

01
추천
면접 정장대여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메이크업

02
스터디룸
SI의면접실
카페공간
도서공간

03
취업스터디
취업아카데미
청년원데이클래스

모든 서비스가
무료라고~~??

· 운영 : 월~토, 오전 10시~오후 9시
· 장소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34
서광주농협 운전지점 2F
(세정아울렛 부근)
· 문의 : 062-372-5990-1
www.todaktodakjob.com